

한신·아와지대지진 30년, 국제적 시각에서의 교훈과 도전,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재난 리질리언스 향상

일시

장소

2025년 1월 13일(월) 13:10~17:30

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우에가하라 캠퍼스
대학원 2호관 3층 교실 5

1995년 1월 17일, 한신·아와지대지진은 6,4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. 30년이 지난 오늘, 한국과 일본은 이 대지진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.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지진의 교훈과 과제를 공유하고, 재해 복구·부흥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.

취지설명 라정일 재해부흥제도연구소 수석연구원 · 부교수

기조강연 「한신·아와지대지진의 교훈, 재해부흥, 인간의 부흥」 야마나카 시게키 재해부흥제도연구소 고문

주제발표

▶ 대규모 재난 발생 후의 레질리언스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복구 수요

이재은 교수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

▶ 재난 리질리언스를 위한 공동체의 연대 -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-

강희숙 교수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

▶ 원자력 수용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지진의 효과에 대한 분석

김서용 교수 아주대 미래안전정책연구소

▶ 재난지역에서 실효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

이창길 교수 인천대 재난지식공유플랫폼연구사업단

[종합토론]

좌장 오카다 노리오 고문 재해부흥제도연구소, 교토대 명예교수

패널 오오와 미에 교수 간세이가쿠인대학 야마사키 에이이치 교수 간사이대학 야마 요시유키 교수 간세이가쿠인대학 등

주제발표

▶ 한국의 한신·아와지대지진관련 사회과학연구 고찰: 재난관리 교훈과 정책개선 방안

최준호 센터장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

▶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수용성과 지역발전: 지역요소를 중심으로

전세혁 연구원, 김미리 연구원 아주대 미래안전정책연구소

▶ 한신·아와지대지진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및 영향

이석현 교수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

▶ 재난현장에서 피해자 중심의 균형적 포용에 관한 연구

이용후 연구원 인천대 재난지식공유플랫폼연구사업단

[종합토론]

좌장 이선혜 교수 간세이가쿠인대학

패널 야마나카 시게키 고문 간세이가쿠인대학 라정일 교수 간세이가쿠인대학 등

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

【주최】 아주대학교 미래안전정책연구소 인천대학교 재난지식공유플랫폼연구사업단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
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

【후원】 한국연구재단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【문의】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(+81-798-54-6996)